

# SK팜테코 “올 프리 IPO 추진… CDMO 글로벌 톱5 도전”

JP모건 컨퍼런스서 비전 발표  
세포·유전자 치료제 투자 강화  
2025년 연매출 20억 달러 목표

SK(주) 자회사인 팜테코가 글로벌 CDMO 업계 톱5에 도전한다.

SK팜테코는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해 ‘비전 2025’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11일 밝혔다.

SK팜테코는 비상장 기업 대상인 프라이빗 트랙에서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 초청됐다. 통상적으로 프라이빗 트랙 발표 기업은 1~2년 내에 상장을 하는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SK(주)도 올해 프리IPO(상장 전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기업공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K팜테코는 SK(주)의 CDMO 글로벌 통합법인으로 출범해 SK바이오텍 한국 외에도 BMS의 아일랜드 스위스 공장, 미국 앵팩, 프랑스 이포스케시 등 3건의 M&A를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에 8곳의 사업장과 5곳의 R&D 센터를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SK팜테코 본사. /SK(주)

보유한 글로벌 CDMO로 성장했다. 항암제, 당뇨, 항바이러스, 코로나 치료제 등 다양한 블록버스터 원료 의약품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혁신 바이오 원료 의약품인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사업을 확장해 빠르게 입지를 키워 가고 있다.

SK팜테코는 합성 원료 의약품 분야의 안정적인 사업 성과를 세포·유전자 치료제 투자로 연결해 미래 성장 동력을 빠르게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SK팜테코 아슬람 말릭 사장은 발표를 통해 글로벌 톱5 CDMO로의 성장 비전을 공유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말릭 사장은 “2021년 잠정 매출은 역대 최대인 7억4000만달러(약 8830억원)로, 글로벌 확장 전인 2017년과 비교해 약 7.5배 증가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다”며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합성 원료 의약품 사업에 더해 세포·유전자 치료제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2025

년에는 연 20억 달러(약 2조4000억원) 매출의 CDMO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미국-유럽-아시아 통합 생산 역량 ▲글로벌 최고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장기계약 기반의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꼽았다. SK팜테코가 미국, 유럽, 아시아에 보유한 모든 생산시설은 미국 FDA, 유럽 EMA 규정을 준수해 세계 주요 지역에서 고품질의 원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앵팩은 2014년부터 FDA 심사관의 교육 장소로 활용될 정도로 우수한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SK팜테코가 생산중인 합성 원료 의약품 파이프라인 시장가치는 2021년 14억 달러(약 1조7000억원)에서 2025년 21억 달러(약 2조5000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K팜테코의 고객 비중은 미국 65%, 유럽 30%로 글로벌 기업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SK팜테코 성장을 가속화할 성장동력으로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사업을 꼽았다. 프랑스 이포스케시 인수와 미국 CBM 투자를 통해 미국과 유

럽 내 생산 역량을 빠르게 확보했다며, 양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시장가치는 약 20억 달러로 생산 역량 및 고객사 확대를 통해 2025년에는 60억 달러(약 7조2000억원)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SK팜테코는 지속 투자를 통해 글로벌 생산 역량 또한 현재 약 1000㎡에서 2025년까지 50%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포스케시는 현재 건설중인 제 2생산 공장이 2023년 완공되면 현재의 2배인 10만 평방피트(약 3000평)로, CBM은 단계적인 증설을 통해 2025년 세포·유전자 치료제 단일 생산시설 기준 세계 최대 수준인 70만 평방피트(약 2만평)의 생산역량을 갖춘 예정이다.

SK(주) 이동훈 바이오투자센터장은 “향후 선진국 내 수준 높은 생산 역량을 보유한 SK팜테코가 글로벌 업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SK(주)는 기술·컴플라이언스 장벽이 높은 혁신 신약 사업의 성공적인 상업화를 지원할 것이며, 성장 계획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SK네트웍스, 뇌 회로 분석 美 기업에 투자

엘비스에 1500만 달러 투자  
디지털 뉴로 헬스 플랫폼 기대

SK네트웍스가 뇌 질환 분야에도 투자를 이어간다.

SK네트웍스는 뇌 회로 분석 기업 ‘엘비스(LVIS)’가 진행한 15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2’ 투자 유치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엘비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뇌 질환 진단 및 치료 기업이다. 뇌 회로를 분석해 치매, 뇌전증 등 각종 뇌 질환을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소프트웨어 ‘뉴

로매치’를 개발했다. 한국 여성 최초로 스탠퍼드대 교수로 임용된 이진형 대표가 2013년 창업해 20여건의 특허 및 13년 이상 축적된 14만건 이상의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엘비스가 뇌 질환 분야의 새로운 진단 및 치료 솔루션을 만들어간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다. 추후 진단 및 치료 단계로 솔루션을 확장해 모든 뇌 건강을 진단하는 디지털 뉴로 헬스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SK네트웍스는 올해 신년사로 사업형 투자사로의 전환을 밝혔으며,

글로벌 신규 시딩 투자 영역 중 하나로 DT/AI를 선정하고 엘비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추가 투자 기회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한중 SK네트웍스 글로벌투자센터장은 “향후 AI는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도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금번의 경우 소규모 투자지만 이를 시작으로 엘비스와 협업 및 자문 등을 통해 앞으로 AI 영역 내 미래 유망 기술을 보유한 회사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 LG전자, 가상인간 ‘래아킴’ 뮤지션 데뷔

미스틱스토리와 업무협약  
윤종신이 직접 프로듀싱

가상 인플루언서 래아킴이 소속사를 찾았다.

LG전자는 지난달 미스틱스토리와 래아킴 뮤지션으로 데뷔시키는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래아킴은 이번 MOU에 따라 미스틱스토리의 ‘버추얼 휴먼 뮤지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미스틱스토리의 대표 프로듀서인 윤종신 씨가 직접 참여, 래아킴의 노래는 물론 목소리까지 프로듀싱한다.

래아킴은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이다. 지난해 CES 2021 프레시 컨퍼런스에 연설자로 등장한 이후 ‘싱어송라이터 겸 DJ’로 SNS에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래아킴(왼쪽)과 윤종신 미스틱스토리 대표 프로듀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전자

미국 CES2022에서 개최한 ‘LG 월드 프리미어’에서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하며 데뷔가 임박했음을 알린 바 있다.

래아킴은 “단순히 음악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 아트, 패션 등 다양한 요소를 접목해, 모두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용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삼성, 포터블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 예판 스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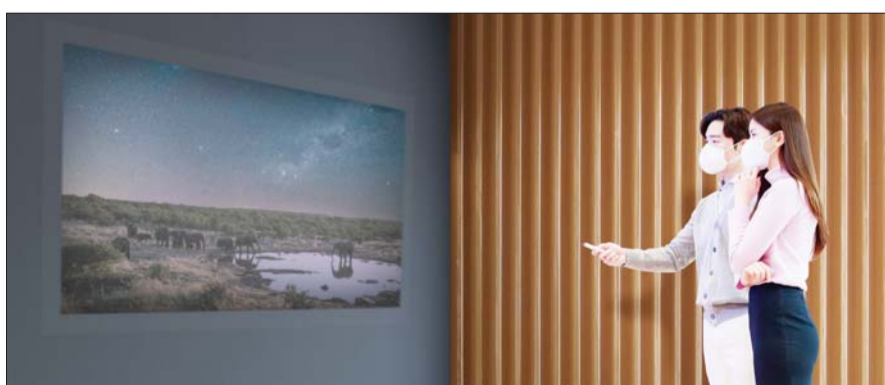
830g으로 휴대 용이… 119만원

삼성전자 더 프리스타일이 국내 상륙 준비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11일부터 더 프리스타일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가격은 119만원으로 이달 말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더 프리스타일은 최근 개최된 CES 2022에 처음 소개된 포터블 스크린이다. 작은 크기에 830g 무게로 휴대하기 편리하고, 벽이나 천장 등 어떤 공간에서도 최대 100형의 영상을 보여준다. 50W/20V 외장 배터리와 연결해 야외에서도 쉽게 쓸 수 있다.

특히 더 프리스타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으로 키스톤과 레벨링, 초점까지 맞춰준다. 스마트 TV 기능도 모두 사용 가능하고, 블루투스 및 AI 스피커 무드등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모델들이 삼성전자 더 프리스타일을 시연해보고 있다. /삼성전자

예약판매는 삼성닷컴과 삼성 디지털 프라자, 11번가와 무신사에서 시작해 다음날인 12일에는 오늘의집과 G마켓, 카카오톡과 네이버로 이어간다. 삼성전자는 11일 11번가에서 라이브 커머스도 준비했다.

예약 판매 기간 중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티빙 스탠드 2년 이용권, 더 프리스타일 전용 캐리어, 전용 배터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라스테이에서도 3월 31일까지 체험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라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한 투숙객에게는 객실에서 더 프리스타일을 자유롭게 사용해 볼 수 있는 ‘The Freestyle To Go’ 서비스와 이 제품을 활용해 만든 객실인 ‘The Freestyle Cinema’를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 현대글로벌비스 물류현장 안전 매뉴얼 무상 배포

현대글로벌비스가 물류현장의 안전 수칙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중소 물류사에 배포했다. 중대재해 예방이 산업현장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만큼 작업자들의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안전한 물류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물류현장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무상으로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물류센터 5곳을 선정해 그곳에 입주한 중소물류회사를 대상으로 안전 매뉴얼 책자 500권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했다. 중소 물류업

계의 폭넓은 상생을 위해 협력 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회사를 선정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최근 물류현장에 화재·압사·끼임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작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매뉴얼 무상 배포에 나섰다. 휴대용 소화기 500개도 함께 지급했다.

물류현장 안전 매뉴얼은 입고·하역·분류·운반·포장·출하 등 물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로 구성됐다. /양성운 기자 ysw@